

막스 베버의 “도시”와 도시사회학*

Max Webers „Stadt“ und die Stadtsoziologie

히네르크 브루нс_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Hinnerk Bruhns_CNRS

[번역] 한수경_인천대학교

Han, Su-Kyung_Incheon National University

원문(Text) 수용에 대해서

자신이 저술하긴 했으나, - 어떤 이유에서든 - 자신이 직접 출간하지 않은 텍스트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저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도시에 대한 베버의 연구가 사후 첫 출간이 된지 거의 80년 만에 드디어 비평서가 나왔다고 해서,¹⁾** 학문을 통한 지금까지의 이 원문의 수용이 즉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수용역사를 기술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한

* 이 글은 Hinnerk Bruhns, “Max Webers „Stadt“ und die Stadtsoziologie” in Bruhns, *Max Webers historische Sozialökonomie*(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2014), pp. 17-40에 수록된 논문을 저자의 허락을 받아 번역한 것이다. 번역을 허락해 준 히네르크 브루нс 교수, 번역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한수경 박사에게 각각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편집자.

** 이 글은 막스 베버의 도시에 관한 한 회의를 위해 준비한 기고문에서 나온 것인데, 이 회의는 1997년 6월 베를린에서 내가 빌프리트 니펠(Wilfried Nippel)과 함께 주최했다. 회의결과물은 2000년 출판되었다(s. Anm. 1).

1) Max Weber Gesamtausgabe(MWG) I, 22-5. W. 니펠의 편집자의 글과 다음을 참조할 것: W. Nippel, Webers „Stadt“. Entstehung - Struktur der Argumentation - Rezeption, in: H. Bruhns & W. Nippel (Hg.), *Max Weber und die Stadt im Kulturvergleich*, Göttingen 2000, S. 11-38; vgl. auch K.-L. Ay, *Max Weber über die Stadt*, in: F. Mayrhofer (Hg.), *Stadtgeschichtsforschung. Aspekte, Tendenzen, Perspektiven*, Linz 1993, S. 69-80, hier S. 71-73.

다면 그 수용역사가 학문의 일상에 속하는 것처럼, 또 아쉽게도 막스 베버의 ‘사회학’을 대면함에 있어 너무나 흔하게 발생하는 것처럼, 그것은 그 먼 노정의 수용하지 않음과 오해의 역사, 혹은 잘못된 의미의 역사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내가 이 연구의 초입에서 몇 가지 소견을 언급할 때는, 거의 동시대의 텍스트를 분석함에 있어 작품사적(werkgeschichtlichen) 맥락과 시대사적(zeitgeschichtlicher) 관계를 인지해야함을 아무렇지 않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만 명백히 하고자 함이다.

빌프리트 니펠은 1921년 사후 출간된 텍스트가 정말 하나의 단일한 텍스트에 관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베버의 원문을 가끔 기이하게 다루는 것이 이와 같은 의문을 일깨우게 하며, 또한 이것은 이 미완성된 원문을 독해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반영한다. 우선 첫 번째 장과 그 다음 장 사이의 눈에 띄는 단절에서 볼 수 있다. § 1. 도시의 개념과 범주들, 이 첫 번째 장은 근대 도시탐구에서 이해할 정도로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특히 도시사회학(Stadtsoziologie)에서 그랬다. 그러나 다음 장들, 즉 § 2. 서양의 도시, § 3. 중세와 고대의 씨족도시(Geschlechterstadt), § 4. 천민(평민)도시(Plebejerstadt), § 5. 고대와 중세의 민주주의.²⁾ 이 장들은 고대와 중세시대에 단체형성(Verbandsbildung)의 극도로 복잡한 문제에 관한 매우 상세하고 어려운 조사들인데, 이 부분들을 도시사회학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실상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며, 또한 이곳 혹은 저곳에서 베버가 자신의 원문을 근대도시에 대해 상술함에 있어, 특히 산업도시에 대해서 보다 확실히 보완했었다더라면 하는 생각과 바람으로 위로를 삼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베버의 목적이 역사적 도시사회학이었을 것이란 상상으로 위안을 삼았으며, 또한 베버의 문제제기에서 근대도시를 제외시킨 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완전히 오인했다.

원문의 본질과 상태에 관한 또 다른 성급한 수용들 역시 막스 베버의 “도시(Stadt)”가 다양한 학문적 관계들 속에서 아주 상이한 수용을 경험하게 되는 결

2) 이 장은 1922년 이후 ‘경제와 사회(Wirtschaft und Gesellschaft, WuG)’에서 나온다. 첫 번째 출판에서는 다섯 번째 중간제목은 아직 없었다. 막스 베버 전집(Max Weber Gesamtausgabe, MWG) I, 22-5에서 본래 장의 구분으로 다시 복구되었다.

과를 초래했다. 더구나 독일에서 그의 운명이 최상은 아니었다. 특히 여기서 중세의 도시역사 그리고 또한 근대 도시화탐구들³⁾ 이끄는 대표자들이 베버의 “도시”를 그들 학과의 기본적인 원전으로 삼고 있음에도 말이다. 하지만 그런 의견들이 일반적으로 미사여구적인 고전인용보다 더하다는 것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베버의 원문은 도시역사를 단지 조건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며, 도시화(Urbanisierung)와는 더욱이 관련이 적기 때문이다. 고대 역사에서 이 원문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로 역시 뒤늦었으며, 베버의 다른 본래의 ‘고대사적’인 작업, 특히 “고대의 농업환경(Agrarverhältnissen im Altertum)”과 같이 단지 끝부분에서 환기시켰을 뿐이다.⁴⁾ 어쨌든 독일어권 국가들의 상황, 즉 “도시”는 학생들 혹은 도시문제에 관심은 있으나 “경제와 사회(Wirtschaft und Gesellschaft)”를 자발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는 보다 폭넓은 공중을 위해서 별쇄본이든 혹은 포켓판이든 재인쇄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전형적이다.⁵⁾

이런 점에서 영어, 이태리, 프랑스와 스페인 언어권의 공중들은 최소한 독일어권 공중들 보다 앞서었다. 다만, 1982년도 프랑스어 발행본과 마찬가지로 1958년도 “도시”의 미국 발행본도 근본적으로 출판사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양자 모두 베버의 원문을 명확히 근대 도시사회학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1950년의 첫 번째 이태리어 번역역시 오해 덕분인데, 말하자면 역사철학자인 엔조 파치(Enzo Paci)가 자신의 서론에서 언급한 덕택이라 덧붙일 수 있겠다. 여기서 그는 도시의 이념형(Idealtyp der Stadt)을 “옛 수공업자-산업과 농촌 간의, 자치와 중앙집권화 간의, 즉 도시와 단일 대표기구들 간 연합의 직접적인 대표성과 연합국가의 가장 복잡한 대표

-
- 3) 예를 들면, H. J. Teuteberg, *Historische Aspekte der Urbanisierung: Forschungsstand und Probleme*, in: ders. (Hg.), *Urbanisierung in Deutschland*, Köln 1983, S. 2-34, 여기서 S. 18 f.
 - 4) 여기에 참고로 H. Bruhns, *À propos de l'histoire ancienne et de l'économie politique chez Max Weber* (“고대의 농업환경(Agrarverhältnisse im Altertum)”의 불어번역에서 서문: Max Weber, *Economie et société dans l'Antiquité*. Paris 1998, S. 9-59).
 - 5) 겨우 첫 번째 장(“도시의 개념과 범주들”)만이 재판(인쇄)되었다, 즉, in: C. Haase (Hg.), *Die Stadt des Mittelalters*, Bd. I, Darmstadt 1969, S. 34-59. - “도시”의 모든 텍스트의 별도의 번역판이 이태리(1950, ND 1979), 미국(1958), 프랑스(1982 [그리고 2014])와 스페인(1987); [또한 그리스 2003]에서 출간되었다.

성 간의” 조화롭고-합리적인 균형을 관찰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힘(eine Kraft)”으로 기술한다. 이러한 이념적 도시(ideale Stadt)는 자유로운 인간의 결합체의 창조물로서 폭정과 야만성에 대항해 끊임없는 투쟁에 서 있다.⁶⁾ 하지만 베버는 결코 그러한 ‘이념적(ideale)’ 도시에 관해 다른 것이 아니다.

미국의 번역은 로버트 E. 파크(Robert E. Park)의 시카고학파의 창립문서와 함께 베버의 “도시”를 동일 선상에 놓고 있다. 루이스 위스(Louis Wirth)의 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생활의 체계적 이론에 가장 가까운 근사치들은 막스 베버가 저술한 통찰력 있는 에세이인 “도시”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리고 로버트 파크의 잊지 못할 논문인 “도시: 도시환경에서 인간의 행동에 관한 조사를 위한 제언들”에 대한 것이다.”⁷⁾ 하지만 베버와 시카고학파, 도시사회학 그리고 도시화탐구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만일 여기서 그것이 단순히 오해에서 생겨난 것이라면, 그것은 단지 번역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독일에서도 역시 1970년대의 도시사회학에 대한 새로운 연구보고서에서도 읽게 되는데, 즉 막스 베버가 “왜 서양에서 한 특정한, 합리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산업화와 이와 함께 산업대도시(Industriegroßstadt)가 발생했는지”⁸⁾의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또 풍부한 자료로 몰두했다는 것이다. 미국 번역의 발행인은 베버의 이론적 관점을 “사회적 행태주의(social behaviorism)”로 정의했다. “인간 간의 삶의 전체 시스템의 단위로서 도시 공동체(urban community)”의 이론을 통해서 베버가 당시의 상이한 제도적 도시이론을 수용했으며, 또 추월했다는 것이다.

6) 참조, das Vorwort von E. Paci, S. XL, und die Einleitung von L. Sichirollo, S. XXVI, in: M. Weber, La Città, Mailand 1950.

7) 미국 간행본의 발행인 및 공동번역자(Max Weber, The City, New York 1958)인 마틴데일(D. Martindale)은 루이스 위스(L. Wirth)의 ‘한 생활방식으로써의 도시생활(Urbanism as a way of life)’에서 이 인용구를 자신의 서문에 적고 있다. 즉, L. Wirth, Urbanism as a way of life, i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4, 1938, S. 1-24, (여기선 특히 S. 8). 위스가 첨가하기를: “하지만 이런 우수한 공헌조차도 연구가 유익하게 진행되게 하는 데 대한 이론의 질서정연하고 일관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But even these excellent contributions are far from constituting an ordered and coherent framework of theory upon which research might profitably proceed.)

8) H. Korte, Stadtsoziologie. Forschungsprobleme und Forschungsergebnisse der 70er Jahre, Darmstadt 1986, S. 2.

근대에는 결과적으로 도시게마인데(Stadtgemeinde)⁹⁾의 자치(Autonomie)와 독립(Autokephalie) 등의 상실을 확립하게 된다는 이러한 독해방식은 당연히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한다. “근대 도시는 외부적이고 형식적인 구조를 상실하고 있다. 민족(the nation)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공동체가 도처에서 확장되고 있는 한편, 근대 도시는 내부적으로 쇠퇴하는 상황이다. 도시의 시대는 끝날 것으로 보인다.”¹⁰⁾ 그렇다면 이것으로 도시사회학에 대한 베버의 의미는 사실상 다시 끝나버린 셈이 된다.

그러한 방식의, 더욱이 일부 진실을 통한 걱정스러운 공언에 독일 중세학(Mediävistik)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¹¹⁾ 칼 하제(Carl Haase)는 1969년 중요한 3권의 전집인 “중세의 도시”의 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도시의 개념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모든 것을 베버가(...), 세계의 도시부문(Städtewesen)를 조망하며, 사실상 이미 1921년 [원문대로!] 언급했는데, 베버가 당시에 도시개념의 모든 의문점과 문제점을 밝혔으며, 법, 헌법, 행정, 소유관계, 경제와 교통, 이주형태, 방어시설, 규모, 인구를 문제제기에 삽입시켰으며, 도시부문 전체를 “비정통적 지배(nichtlegitimen Herrschaft)”에 포함시켰다.

자신의 문장의 이러한 최근의 발언이 무엇을 의미해야 하며, 또 의미할 수 있는지를 하제(Haase)가 의식하고 있었다고 희망할 수밖에 없다. 이 발언들이 많은 역사학자들의 이론적 절제를 한 번 더 명확히 하는데, 이는 동시대의 사회과학적 텍스트 앞에서 완전히 무력하게 되며(또한 역사학자들의 노련한 텍스트-비판적인 도구를 포기하며), 또한 고전을 의미 없이 인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여하튼 하제는, 도시탐구에서 도시개념의 이러한 문제제기는 베버의 작업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어느 정도 소심함을 보이게 했다고

9) 독일어 ‘Stadtgemeinde’는 Stadt(도시)와 Gemeinde(게마인데, 공동체)의 합성어로 위의 영어에서 urban community와 같은 의미이다. 역자 주.

10) Martindale, in: Weber, The City, S. 62.

11) 일반적으로 여기에 참고할 것은, G. Dilcher, Max Webers „Stadt“ und die historische Stadtforschung der Mediävistik, in: Bruhns & Nippel, Max Weber und die Stadt im Kulturvergleich, S. 119-143.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주해장치보다도 강력하게 인식하도록 하며, 베버의 이 위대한 계획이 근대 도시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독자로 하여금 믿게 만들고 있다.”¹²⁾ 이것을 의심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아마도 사정이 단지 그러해서, “도시. 한 사회학적 연구(Die Stadt. Eine soziologische Untersuchung)” 혹은 차후의 내용엔 “경제와 사회(Wirtschaft und Gesellschaft)”에서: “비정당성의 지배(도시의 유형학)”의 제목을 지닌 원문은 사회학의 창시자 중 한 사람에 의해 쓰인 것으로, 도시사회학을 위한 근본적인 공헌 이외에 단지 아무것도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도시분야(Champ urbain) 시리즈에서 불어 번역(1982)을 기초로 삼고 있다.¹³⁾ 올리엔 프로인트(Julien Freund)는 여기서, 즉 불어판의 서론에서 베버의 법사회학과 ‘도시’를 배치했다. 두 경우 모두 베버에 의해 마지막으로 정리된 원문에 관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도시”는 아직 미완성된 것으로, 베버가 근대 도시의 분석에 관해 자신의 연구를 분명히 더 보충하려 했을 거라고 한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보다 큰 오해라곤 거의 생각되지 않는다.

여기서 난 수용역사를 더 이상 상세히 논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단순한데, 그러한 광범위하고 상이한 평가들은 오로지 피상적인 독서로 환원된다. 베버가 이 미완성된, 또 출간되지 않은 원문으로 실제로 어떠한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 우린 단지 많은 적든 잘 증명된 추측들만을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작품사적인 맥락을 보다 면밀하게 주시한다면, 또 도시에 대한 동시대의 논쟁에 대한 관계들에 대해 지금까지의 경우와는 달리 질문한다면, 우린 아마도 베버를 이해하는데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사회학에서 이러한 질문은, 베버의 ‘도시’를 1903년 짐멜(Simmel)의 논문 “대도시와 정신생활(Die Großstädte und das Geistesleben)”과

12) C. Haase, in: ders. (Hg.) Die Stadt des Mittelalters, Bd. 1, S. 1f.

13) M. Weber, La ville, Paris 1982 [Aurélien Berlan의 새 번역이 2014년 9월 발행되었다.]. Vgl. M. Pollak, Die Rezeption Max Webers in Frankreich, in: KZSS 38, 1986, S. 670-684; ferner W. D. Smith, The Emergence of German Urban Sociology, in: Journal of the History of Sociology 1, 2, 1979, S. 1-16, bes. S. 5, 그는 베버를 당연히 독일 도시사회학에 넣는다(der Weber wie selbstverständlich der deutschen Stadtsoziologie zurechnet).

느슨한 관계를 맺을 때의 방식으로 던져져야 한다.¹⁴⁾ 역사학자들은 이 문제를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1990년 보쿰에서 있었던 독일 역사학자의 날에 베버의 “도시”가 한 섹션에서 전적으로 다루어졌다는 점은 수용역사에서 한 사건으로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1980년대 연구 상황의 배경에서는 고대와 중세도시에 대한 베버식의 범주와 논제의 가능성 있는 결과물에 집중되었다.¹⁵⁾ 결국 베버 작품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베버의 상술을 이해하는 것과는 관련성이 적었다.

작품사적 맥락에 대해서

먼저 가정해서 질문하면, 만일 마리아네 베버(Marianne Weber)가 남편이 남긴 논문들 중에서 “도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독일 사회학의 창시자’에서 도시에 대한 어떤 언명과 연구가 남아있겠는가? 이것은 정당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결국 도시와 도시화는 탄생하는 사회학의 근본적인 대상물들이며, 이 사회학은 더 나아가 산업화되고 또 도시화된 사회의 한 산물이기 때문이다. 가장 단순하고 정확한 대답을 하자면, 도시와 도시화되는 것(Verstädterung)은 아주 적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베버의 사회학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데, 이에 대해 내가 곧 다루게 될 것이다. 당시 독일사회학의 베버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분석은 역사적 그리고 특히 동시대적인 농업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몰두했다는 데 있다. 먼저 모든 것이 농업자본주의(Agrarkapitalismus) 문제

14) 참조, 예로는 das Kapitel „Max Weber, Georg Simmel et la ville“, in: A. Bourdin u. M. Hirschhorn (Hg.), Figures de la ville: autour de Max Weber, Paris 1985, sowie St. Jonas, La „Groszstadt“ - métropole européenne dans la sociologie des pères fondateurs allemands, in: J. Rémy (Hg.), Georg Simmel: Ville et Modernité, Paris 1995, S. 19-36. - 짐멜(Simmel)의 논문은 겐기-재단(Gehe-Stiftung)(s.u., Anm. 38)의 전집에 출판되었다.

15) 크리스티안 마이어(Christian Meier)가 진행했던 세션은 “고대와 중세도시의 도시로의 귀속 - 어떻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하에서의 막스 베버의 논점들”이란 제목을 달고 있다. 크리스티안 마이어가 출판한 저작집(Sammelband)은 “막스 베버에 의거한 서양의 도시. 고대와 중세시대의 소속의 문제점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발행되었다(뮌헨 1994, 역사 저널, 부록책자 17); 중세적 논문으로 G. Dilcher (위의, Anm. 10)를 참조. 그와 구별되는 저작은 베버 구상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중국, 인도와 러시아의 도시에 대해 베버가 상술한 것들과의 연관성을 통한 것으로 본 논문이 실린 저작에서 나온 것이다.

주변을 돌고 있는데, 새로운 세기(19세기: 역사 주) 초반의 1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초판이 출간된 이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1895년 한 강의에서 베버는 “도시와 농촌에서의 독일 노동자문제”를 다루었고, 그리고 나서야 베버는 거대산업에서의 노동자계급의 발달에 대한 본질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산업의 발달과 도시의 발달 간의 관계, 산업자본주의 생활양식과 대도시의 생활양식 간의 관계는 그러나 베버 자신의 작업에서의 주제가 된 곳은 어디에도 없다. 농경사회학은 베버를 그들의 계보에 넣을 수 있으며, 산업사회학에도 넣을 수 있지만, 결코 도시사회학의 계보에 베버를 넣을 수는 없다. 물론 베버의 작품에서 근대 및 당대의 도시에 대한 여러 언급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몇몇의 원문구절이 베버가 농촌에 대한 관계들을 연구한 것과 같은 방식의 도시의 사회학적 연구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대응물도 제공하지 못한다.

그동안 도시연구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빌프리트 니펠(Wilfried Nippel)의 편집보고에 근거해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¹⁶⁾ 그것에 따르면, 베버는 1911년부터 1914년까지 이 원문 작업을 했다. 이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다음의 다른 작업들이다: “고대의 농업환경(Agrarverhältnisse im Altertum)” (1907/08년 저술, 1909년 출판); “폐쇄적인 거대산업 노동자들의 선택과 적응(직업선택과 직업수명)에 관한 조사” (1908년); “산업노동의 정신물리학(Zur Psychophysik der industriellen Arbeit)”에 대한 연구들(1908년과 1909년); “자본주의 정신”에 대한 변론 (1910년). 여기에 덧붙여 가치판단(Werturteil) 문제에 대한 사회정책협회(Verein für Socialpolitik)에서의 논쟁들이 있으며, 말하자면 (베버에겐) 특히 국가경제에서의 생산성개념 문제에 관한 것으로, 1909년 빈의 학술회부터 1914년 1월의 가치판단토론에 이른다, 최종적으로 독일 사회학학회(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ologie, 1909/10)의 창립과 이와 함께 진행된 거대한 경험적 조사를 위한 베버의 계획들(특히 신문설문조사)이다. 1910년부터 베버는 “사회경제학 요강(Grundriß der Sozialökonomik)”에 대한 계획을 발전시

16) MWG I/22-5, S. 45-58.

켰으며, 베버 자신이 직접 제공하고자 했던 여러 논문들 중 하나의 작업에 들어갔는데, 요컨대, “경제와 사회”, 늦어도 1913년에는 “세계종교의 경제윤리(Wirtschaftsethik der Weltreligionen)”에 대한 작업에 들어갔다. (“유교(儒敎)”에 관한 “서문”과 첫째 부분은 1915년¹⁷⁾ “문집[Archivs]” 41권에 발행됨).

“도시” 원문의 이러한 작품사적인 맥락은 우선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즉 초기 혹은 동일시기의 원문에서 어떤 부분이 도시에 관한 연구로 흘러들어 갔으며, 그리고 여기서 경우에 따라 그것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되었는가? 베버가 “도시”에서 어떤 부분 혹은 어떤 논증노선을 차후의 원문에 차용했으며, 또 어떠한 관계로 그랬는가? 1913/14년 이전의 시기에 “도시” 원문에서 다루지 않은 도시 혹은 도시화 문제에 대해 베버의 실질적인 언명이 있었는지, 그리고 만일 있다면, 왜 언급하지 않았는가?

나는 다음에서 간략히 개관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두 중요한 원문그룹은 한편으로 고대와 또한 중세에 관한 연구이며, 다른 한편으로 경제윤리와 세계종교에 대한 종교사회학적인 연구들이다. 한 공통된 문제제기는 “도시”를 한편으로 “고대의 농업환경”과 연결시키며, 다른 한편으로 “세계종교의 경제윤리”와 연결시키는데, 특히 유교에 관한 연구와 관련짓고 있다. 즉, 근대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혹은 조건부재)에 대한 논제이다.

“고대의 농업환경”(1909년 판에서)과 “도시” 사이의 내적 연관성은 1909년 원문의 결론의 장에서 명백하게 나타나며, 거기서 베버는 고대도시와 중세도시간의 첫 번째 사회구조적 비교에 관한 초안을 잡는다. 국가학 전문사전(Handwörterbuch der Staatswissenschaften)의 장문에서 고대 도시들의 서술에 필요한 풍부한 자료들이 베버에게만 마련되어 있었다. 거기서 직접적으로 “도시”의 핵심 논점으로 다루는지는 것은 특히, 고대의 폴리스와 중세의 도시사회에 관한 사회구조의 비교분석인데, 여기서 비교의 관점은 그러나 고대에서 중세로의 변화이다; 또한 고대 폴리스에 관한 많은 다른 핵심적인 언명들이 있다. 시노이키스모스(Synoikismos), 도시-농촌관계, 기회거래(Gelegenheitshandel)의 중요성 등.¹⁸⁾ 그것에 대해 빌프리트 니펠이 이미 다른 부분에서 언급했다.¹⁹⁾

17) 41권엔 날짜가 1916년으로 적혀 있다.

1909년의 “농업환경”의 해당되는 문구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변경들은 중세에 관한 이후의 원문에서 계획되었던 변화된 유형학(類型學)에 있다. 하지만 이것이 본질적인 변화는 아니다. “고대의 농업환경”에서 고대 경제의 서술 또한 베버가 이미 자본주의에 대한 질문으로 더욱 체계화시켰다. 먼저 이어지는 도시 연구에서 중세도시에서의 시민계급(Bürgertum)의 탄생은 이 문제의 초점이 된다. 그것으로부터 베버에겐 방법적으로 이념형적인 비교의 필연성이 도출된다. 이것이 결국 알려진 이념형적인 첨예화로 귀결되는데, 즉, “요약하자면, 고대 폴리스는 중장병규율(Hoplitendisziplin)이 생겨난 이후부터 전사계급(Kriegerzunft)이었으며”²⁰⁾, 그리고 “중세의 도시 시민의 정치적 상황은 호모에코노미쿠스(homoeconomicus)가 되는 길로 가게 되는데, 반면에 고대 폴리스는 전성기시대 동안에 군사 기술적으로 최고에 위치한 국방연합으로서의 특성을 보존했다. 즉 고대 시민은 호모폴리티쿠스(homopoliticus)였다.”²¹⁾

모제스 I. 페레이와 관련해 수많은 관심이 모아졌던 생산도시와 소비도시의 대비는 도시경제정책과 관련된다. 즉, 생산자로서(알프스 북쪽의 중세 내륙도시에서) 혹은 소비자로서의(전통적 폴리스에서) 시민의 입장에서의 도시경제정책이다.²²⁾

유작으로 남겨진 “도시” 원문에는 전혀 보이지 않거나 혹은 단지 일부만이 다시 나타나는 고대에 대한 베버의 작업에서 도시 혹은 도시들에 관한 핵심적 의도들을 파악하는 데는 다른 형태의 문제가 발생된다. 특히 1896년의 “고대 문화 멸망의 사회적 원인들(Die sozialen Gründe des Untergangs der antiken Kultur)”에 관한 논문에서는 해안도시이론(Küstenstadttheorie)”에 대해 다루어지며, 또한 고대 농업환경에 대한 서론(“고대 국가세계의 경제이론에 대하여”)에

18) H. Bruhns u. W. Nippel, Max Weber, M. I. Finley et le concept de la cité antique, in: OPUS 6-8, 1987-1989 [1991], S. 29-50.

19) W. Nippel, Max Weber und die okzidentale Stadt, in: Berliner Journal für Soziologie 5, 1995, S. 359-366, hier S. 360f.

20) MWG I/22-5, S. 283.

21) MWG I/22-5, S. 275.

22) 참조, H. Bruhns, De Werner Sombart à Max Weber et Moses I. Finley: La typologie de la ville antique et la question de la ville de consommation [1985], in diesem Band, Kapitel I. 3.

서는 고대 도시발달(조직단계)의 일곱 단계 이론과 두 모델이 다루어진다:

1. 후기 도시의 전단계인 방벽(Schuttwall)과 단체(Verband),
2. 성곽왕국(Burgenkönigtum),
3. 귀족 폴리스(Adelspolis),
4. 관료적(권위적) 도시왕국(Stadtkönigtum),
5. 권위적 예배국가 (autoritärer Leiturgiestaat)²³⁾,
6. 중장병규율 (Hoplitenpolis),
7. 민주적 시민폴리스 (demokratische Bürgerpolis),²⁴⁾

결론적으로 헬레니즘과 로마황제국 도시의 주요 경제적 특징에 대한 짧지만 중요한 소견이 다루어진다. 우리가 수차례 읽듯이, 만일 후기 도시연구에서 고대와 중세의 도시역사와 도시부문(Städtewesen)을 다루어졌다면, 이러한 상술들 역시 거기서도 기대할 수 있어야 했다.

1911/14년의 원문에서 고대도시에 대한 논제의 상대적인 축소와 제한은 반대로 중세도시에 대한 언명을 강하게 확대하고, 또한 특히 베니스와 영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겠다. 고려해야 할 것은 여하튼 베버가 바로 전에 “농업환경”에서 기술했던 고대도시에 대한 일련의 중요한 논증들을 포기한다는 점이다.

“도시”와 동시에 시작된, 그리고 1919/20년까지 진행되었던 “세계종교들의 경제윤리”에 대한 작업은 이중적인 성격을 띤다. 즉 서양도시의 그곳에서 발전된 차별화된 유형학은(고대 폴리스 - 중세도시; 중세의 남유럽 - 북유럽 도시) ‘서양도시’의 통일된 이념형으로서 종교사회학적 연구에서 중국과 인도의 이념형, 즉 동양도시의 일반적인 이념형과 대치된다. ‘서양도시’ 유형에서 이전에 정반대로 대치되었던 이념형의 중세도시와 고대도시의 통일은 특정 기준을 포기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특히 이윤기회와 경제정책의 방식에 대한 핵심적인

23) 고대 그리스의 부유한 시민들의 공적 복무: 역자 주.

24) GASW, S. 35 ff. Vom Stadium Nr. 2 gehen zwei idealtypische Entwicklungslinien aus: einerseits Nr. 3 und 7, andererseits Nr. 4 und 5.

문제를 약화시킴으로써), 말하자면 결국 문제제기를 제한함으로써 이루어진다.²⁵⁾ 왜냐하면 이는 중국의 도시로부터 형성된 것으로, 중국에서 도시의 정치적 특수성의 부재가 고대와 중세의 도시와는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는 가정에 근거를 둔다. 중국의 도시는 “게마인데(Gemeinde)”가 아니었으며, 또한 시민계급(Bürgertum)을 알지 못했다.²⁶⁾ 말하자면, 단체행위(Verbandshandeln)의 이행자로서, 도시경제정책의 의미에서 규제하는 행위의 이행자로서의 도시시민계급(Stadtbürgertum)을 중국의 도시는 알지의 못했다.

세계종교의 경제윤리와 도시연구 사이의 내적 연관성은 분명하게 생성될 수 없는데, 첫째 장 “도시”(“I. 도시의 개념과 범주들”)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중세와 고대의 도시에 대한 다음의 장에서도 그렇다. “도시”에서 아주 짧게 기술한 또 보다 넓은 지리적 조망에서 침부한 중국과 보다 작은 규모로 다룬 인도 도시의 유형은 종교사회학적 연구에서 보다 상세하게 증명되었다. 동시에 이것으로 베버의 첫 번째 종교사회학적 연구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1904/5)에 선을 그었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출판한 이후부터 방어해야만 했던, 주요한 - 근거가 부족한 - 비난이 있었는데, 근대 경제 발전의 물질적 측면을 베버가 완전히 간과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베버는 세계종교들에 대한 연구를 아주 다르게 구성하는 것으로 반응했는데, 세계종교들의 종교적 현상의 연구에서 각각 “사회학적 토대”(중국)와 “사회적 시스템(sozialen Systems)”(인도)에 대한 긴 분석을 미리 설명해 놓았다. 두 경우에 있어서 베버의 첫 통찰이 도시시스템에 적용된다는 것은 우연도 또 그 해에 수정된 도시연구와 관련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베버가 도시문제에 두는 의미는 두 거대 종교사회학적 연구에 대한 초입문장들을 보면 이미 알 수 있다. “중국은, 일본과는 아주 다르게, 우리 역사 이전의 시대부터 이미 [벽으로 둘러싸이지 않은 거대한 도시들의 나라였다.”²⁷⁾ 그리고: “인도는 중국과 달리 마을들의 나라이며, 또한 생각할 수 있는 확고한 출생신분 구조의 나라였으며, 나라이다. [...] 도시형성은 수백

25) 방법(그리고 방법의 문제)에 대해 인도(영주)도시 계획도 참조, 덧붙여 M. Mann, in Bruhns & Nippel, Max Weber und die Stadt im Kulturvergleich.

26) MWG I/19, S. 149.

27) MWG I/19, S. 128. 가로안의 내용은 1920년 판에서 근거했다.

년 동안에 걸쳐, 우리가 보게 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중세 서양의 현상들에 가까워졌다.”²⁸⁾

베버 논증을 위한 도시 본래의 의미는 1920년 “유교(Konfuzianismus)”의 결정판에서보다 오히려 첫 번째 판(1915년)에서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왜냐하면 거기서 1915년의 원문의 두 번째 단락 전에(“모든 동양의 도시형성과 마찬가지로, 서양에 대한 중국 도시형성의 근본차이는 그러나 도시의 특수성의 부재에 있다.”) 화폐제도(Geldwesen)에 대한 긴 상술을 삽입했기 때문이다.²⁹⁾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베버는 후속 판에서 중국도시에 관한 자신의 상술을 아주 현저하게 늘렸는데, 특히 업종별협회(Berufsverbände)와 도시경제정책에 대한 부분이다.³⁰⁾

확실히 할 것은 우선, 베버가 중국과 인도의 도시에 관한 연구에서 언급한 것이 직접적으로 “세계종교의 경제윤리”의 논증관계에 해당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다. 베버는 ”종교사회학에 대한 논문모음(Gesammelten Aufsätzen zur Religionssoziologie)”에 대해 1920년의 머리말에서 전체맥락을 아주 명확하게 규정했다.

문화의 보편적 역사에서 결국 우리에게 있어 핵심 문제는 순전히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활동의 단지 형식에서만 모든 것이 변화하는 발전이 아닌, 즉 탐험가유형의, 혹은 무역의 자본주의의, 혹은 전쟁, 정치, 행정과 이윤기회를 지향한 자본주의의 그런 것이 아니다. 핵심 문제는 무엇보다 자유로운 노동(freie Arbeit)의 합리적 조직을 갖춘 시민 경영자본주의 발생에 있다. 또는 문화사적으로 돌리면 자본주의 노동조직의 탄생과 자유롭게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그러나 당연히 단순히 동일하지 않은 서양의 시민계급과 그 독자성의 발생에 있다. 왜냐하면 신분상의 의미에서의 ‘시민(Bürger)’은 독특한 서양 자본주의 발달 이전에도 이미 존재했다. 그러나 자유로운 시민계급은 단지 서양에서만 있었다.³¹⁾

28) MWG I/20, S. 49, 53.

29) MWG I/19, S. 132-148.

30) MWG I/19, S. 155-158.

31) GARS(Gesammelten Aufsätzen zur Religionssoziologie) I, S. 10. 참고로 또, GARS I, S. 240 (즉, 1913년에 쓰인 세계종교의 경제윤리에 대한 “서론”에서)

여기선 더 이상 도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도시연구의 실질적 대상인 시민 계급에 대한 문제이다. 중국을 기술함에 있어 도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는 도시는 베버가 중국에서 근대 자본주의가 생기지 않은 것을 설명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많지 않은 요소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며, 자본주의가 유럽에서 보다 오히려 중국에서 더 좋은 발생기회를 가졌을 것이라는 일련의 다른 경제적, 정치적, 또 윤리적 요소들을 기대했던 이후에 말이다. 도시가 어느 정도까지 단체행위를 내포한 도시시민들의 연합인지, 그리고 도시가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조직화 형태와 기업형태의 형성을 촉진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목표로 도시는 분석된다.³²⁾ 이와 문화적 요소의 강조는 자본주의 발전은 본질적으로 귀금속수입(Edelmetallzufuhr)이나 혹은 인구증가(Bevölkerungsvermehrung)와 같은 요소들로 환원된다는 동시대적 논제에 반하는 것이다.³³⁾

베버가 “서문”에서 언급한 시민은 유럽역사의 특정단계의 산물로, 베버가 명명하는 것처럼, 도시자치의 “간주곡(Intermezzo)”의 특정단계의 산물이다. 베버는 다만 이러한 규정의 틀에서만 ‘서양도시’의 이념형을 구성하며, 그 이념형은 유럽 도시형태의 전체를 아우르는 한 종합적인 개념이 절대 아니다. 베버에 따르면, 중세의 도시발달은 근대 자본주의와 근대국가의 발생의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이로써 도시들이 정치적 자주권과 자치적 경제정책을 지닌 어느 정도는 언제나 ‘자치도시(Kommunen)’였던 시대를 의미한다. 고대도 유사한 방식으로 자치도시를 알고 있었으나, 하지만 비교할만한 발달로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베버가 기획한 도시의 특징적인 형태에서 양측의 도시유형의 비교는 ‘근본적인 차이’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들로부터 중세의 도시 발달 요소에 대한 논증된 가정들이 도출되며, 이러한 가정은 근대 경제와 근대 국가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³⁴⁾

32) MWG I/19, S. 468.

33) 참조, Max Weber, WG 300 f.

34) MWG I/22-5, S. 233. 원문의 결정적인 부분은 위, 12-13쪽 인용. 1914년 6월 21일 게오르크 폰 벨로프(Georg v. Below)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베버는 중세도시가 지닌 특수성을 고대, 중국, 이슬람 도시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밝히고자 했다고 썼다; G. v. Below, Der deutsche Staat des Mittelalters, Leipzig 1925², S. XXIV를 보시오, 여기서 MWG II/8(Briefe 1913-1914) 인용.

“서문”을 작성했던 같은 시기에 베버는 뮌헨 대학에서 경제사를 강의했다. 멜히오르 팔리(Melchior Palyi)와 지그문트 헬만(Sigmund Hellmann)이 받아쓴 것에 따라 재구성해 출판된 ‘경제사, 보편적 경제사와 보편역사의 개요 (Wirtschaftsgeschichte. Abriß der universalen Wirtschafts- und Universalgeschichte)’에서 우리는 베버의 “도시”를 다시 발견한다. 즉 제4장(근대 자본주의 발생) §7 “시민계급(Das Bürgertum)”이라는 소제목 하에서다. 이 부분의 19 페이지는 “도시의 개념과 범주들”³⁵⁾에 대한 1장을 포함해서 마치 도시원문의 요약본을 읽는 것 같다. 아마도 베버가 자신의 강의를 위해 출간되지 않은 원문꾸러미를 다시 참조한 것 같다. 그리고 베버가 위에서 인용한 “도시”-원문 부분에서 상세히 언급했듯이, 여기서도 “도시”는 아주 명백하게 근대 자본주의의 발생조건에 대한 연구와 관련된다.³⁶⁾

세계종교의 경제윤리에 대한 원문을 한편으론 경제사와 비교하고, 다른 한편으로 고대에 관한 연구와 비교한다면, “농업환경”에서 아직 그렇게 형태를 갖추지 않은 시민계급에 대한 문제에 근거한 도시연구는 차후의 원문에 보다 가깝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서술의 방식이 아니라, 문제제기와 논증의 방식은 “도시”-원문을 세계종교의 경제윤리의 주변으로 보내게 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도시” 역시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대해 나중에 보완한 형태이며, 또한 기독교에 관한 계획된 연구의 예견(Vorgriff)이다. “도시”는 개혁 이전의 기독교 경제윤리의 제도적 조건을 다루며, 또 이와 대조적으로 고대의 경제성향(Wirtschaftsmentalität)을 다루고 있다. “도시”-원문에서 베버는 시민계급 발생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정신적 전제조건들을 연구하는데, 이 시민계급은 다시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앞으로 나타날 효과의 가능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기술된다.

작품의 전체맥락에서 도시연구를 세계종교의 경제윤리에 넣을지, 혹은 경제와 사회로 분류할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의미 없는 질문이며, 주제 “도시”와 관련해서 두 원문들이 설사 동일한 것이 아닐지라도, 상당히 보충적인 문제제기

35) Max Weber, WG S. 272f. 도시의 정의는 “시민계급(Bürgertum)” 다음에서야 나온다.

36) 베버가 “경제사”에서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견해는 도시의 “문화의미”이다. WG, S. 271: “문화 전반에 걸쳐 도시의 성과는 대단하다.” 그리고서 길게 나열한다.

들을 내포한다는 통찰을 방해한다.

베버는 이미 아주 오래전의 작업에서 도시들의 경제적 기능에 대해 몰두했었다. 자신의 중세 무역상의 역사(Geschichte der Handelsgesellschaften im Mittelalter, 1889)에서, 그리고 아주 직접적으로는 1894/95년부터 1898년까지 프라이부르크와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일반(이론적) 국가경제”에 대한 자신의 강의에서다. 1898년 자신의 강의에 대한 “개요”의 § 11은 “도시경제와 근대 기업형태의 기원”³⁷⁾이란 제목을 달고 있다. 차후 도시연구에서 처리된 자료들의 많은 부분이 여기서 이미 준비되었다는 것을 개개의 목차와 참고문헌이 보여준다.

도시경제의 개념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먼저 다른 한 소견을 말하자면, 근대 도시에 관한 베버식 관심에 대한 특정시각으로는 필경 도시연구에 진입하는 통로를 찾지 못한다. 1910년 10월 제1차 독일 사회학자의 날에서 막스 베버는 ”기술과 문화(Technik und Kultur)“에 대한 베르너 쾰바르트(Werner Sombart)의 발표에 이어 발언을 했다. 베버는 어느 정도 존재하는 외형적-미학적인 가치에 대한 근대 기술의 관계를 가리키며,

하지만 우리의 근대 예술문화에서 아주 특정 형식의 가치로써 단지 근대 대도시의 존재를 통해서만이 탄생될 수 있는데, 전차, 지하철, 전기와 다른 가로등, 쇼윈도, 콘서트홀과 레스토랑 홀, 카페, 굴뚝, 석조더미, 그리고 모든 음감과 색감의 격렬한 춤, 성적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인상들과 생활방식과 행운의 온갖 종류의 외관상론 지칠 줄 모르는 가능성들에 대한 굶주림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구조 변형의 경험들을 지닌 근대 대도시의 존재를 통해서. 부분적으론 저항으로, 혹은 이러한 현실로부터의 독특한 회피수단으로써: - 최고로 미학적인 추상들 혹은 깊은 꿈의 형태나 혹은 질은 연기의 형태로, 부분적으로 그런 것에 적응하는 것으로, 즉 - 그들 자신의 환상적이고 취하게 하는 리듬의 변명³⁸⁾

다음엔 서정시(Lyrik), 근대 미술, 그리고 근대 음악에 대한 기술이 뒤따른다.

37) M. Weber, Grundriss zu den Vorlesungen über Allgemeine („theoretische“) Nationalökonomie (1898), Tübingen 1990, S. 15 (in der Paginierung des Nachdrucks).

38) GASS, S. 453.

그리고 베버는 어떤 문제가 음악사에 속하며, 즉 예술적인 소망과 음악기술적인 수단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 그리고 어떤 문제가 사회학의 대상이며, 요컨대 “한 특정 음악의 ‘정신(Geist)’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오늘날의, 특히 다시금 우리의 대도시 생활의 일반적인 기술적 토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아주 명료하게 규정한다.³⁹⁾

그러나 이는 베버가 잠시 후에 고대와 중세의 도시와 관련해서 제기했던 것들에 아주 근접한 문제인데, 말하자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또 지리적 환경의 영향에 대한 질문들이다. 혹은 달리 말해, 구조적인 환경 적응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행동양태가 생겨나는가? “도시”-연구의 아주 핵심적인 결과는 바로 시민들의 에너지들이 평화적인 영업과 영업의 합리성으로 향하게 했던 요소들이 도시 연구에서 나타난다는 데 있다.

동시대의 대도시에 대한 다른 숙고들에 대해서, 짐멜(Simmel), 톨니스(Tönnies), 쾰바르트(Sombart) 그리고 다른 많은 저자들 시대의 생각들을 우리가 알듯이, 아마도 베버의 “도시”에서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은 도시에서의 낯센(Fremdheit)에 대한, 즉 주민들 간의 친분의 결여에 대한, 절연한 소견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⁴⁰⁾ “도시, 한 사회학적 연구”라는 제목을 가진 한 에세이에 관해서는 하지만 더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다. 동시대의 문헌에 베버가 허용했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빌헬름 헤니스(Wilhelm Hennis)처럼 표현한다면, 대단한 힘도 들이지 않고, 두 차례의 오후에 걸쳐 좋은 시기를 피우면서 근대 산업도시와 대도시의 유형학을 즉석에서 해냈을 것이다. 쾰바르트의 근대 자본주의(Der moderne Kapitalismus, 1902)를 한 번 다룬 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이 책의 제 10, 11, 12장은 그러한 완전히 잘 구성된 유형학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이 장들은 또한 인구의 재생산, “도시행 열차(Zug nach der Stadt)”, 그리고 기초연금조성을 다루고 있다.⁴¹⁾ 막스 베버 자신이 당시의 도시유형에 대한 활발한 관심을 가졌

39) GASS, S. 455.

40) MWG I/22-5, S. 59. 참조, 겔기-재단(Gehe-Stiftung)의 도시전시회를 기회로 1903년 출간된 저작집: Die Großstadt, hg. von Th. Petermann, Dresden 1903 mit Beiträgen von Simmel, Bücher, Ratzel, und v. Mayr, u.a.

41) W. Sombart, Der moderne Kapitalismus, 2 Bde., Leipzig 1902, 이 ‘근대 자본주의(Der moderne

다는 것은 마리아네 베버가 인용한 편지들에서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는데, 그 편지에서 베버는 1904년 여름 미국여행을 하는 동안에 뉴욕, 시카고, 세인트 루이스와 오클라호마 도시에 대한 자신의 다채로운 인상들은 묘사하고 있다.⁴²⁾ 베버는 자신이 발견한 미국 도시들의 형태에 매료되었다: “맨해튼 에일랜드의 상가구역, 거기서는 이 나라의 ‘자본주의 정신’이 자신의 가장 인상 깊은 상징을 창조해 냈다”; “놀라운 도시들 중의 하나”인 시카고는 아름다운 빌라구역과 노동자구역 사이의 대조와 가축 방목장을 지닌: “사람이 볼 수 있는 데까지는 가축의 떼, 포효, 울부짖는 소리, 끝없는 오물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 수평선 주변에 - 도시는 마일과 마일을 넘어 더 넓게 뻗어가며, 그 도시가 교외의 무리에서 사라질 때까지 - 교회, 관현악단, 승강기-창고, 연기 나는 굴뚝 ... 그리고 각종 형태의 주택들”. 총성, 동맹파업, ‘약탈습격’,

전체적으로 보아 한 독특한 문화번영. 엄청난 것은 민족들의 뒤섞임이다: 그리스인은 거리 위쪽 아래쪽을 청소하고, 양키에겐 5센트짜리 장화를 - 독일인은 웨이터이고, 아일랜드인은 그들에게 행정을 봐주고, 이태리인은 가장 더러운 흙일을 한다. 아주 어마어마한 도시 - 런던보다 더 확장된! - 빌라구역을 제외하고는 한 인간과 닮았는데, 피부가 벗겨지고, 우리가 그 내장기관이 작동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말이다.

대도시 외곽의 매혹적인 건물들의 집단주택가의 대학에서 베버는 아내에게 쓰기를 “즉시 그의 상당한 관심을 끌었던 것, 바로 종교적 정신의 조직적인 힘에 대한 분명한 자취이다.” 그 여행은 계속되어 세인트 루이스를 거쳐 남쪽으로 향했다. 베버가 여기에 무척 관심을 보였는데, “유럽이 제공하지 않는 것: 형성되는 한 도시(Stadt)와 형성되는 주(Staat) 오클라호마다”;

갑자기 석유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발파구멍의 높은 에펠탑모양의 구조물이 보이는

Kapitalismus)’는 이와 관련해서 베버 자신의 논문 “도시의 개념과 도시형성의 본질(Der Begriff der Stadt und das Wesen der Städtebildung)”보다 더 중요하다(ASSP 25, 1907, S. 1-9). 쾰른의 도시분석에 대해서는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쾰른의 두 번째 판에서 참조, H. K. Betz, Werner Sombart's Theory of the City, in: J. Backhaus (Hg.), Werner Sombart (1863-1941), Social Scientist, Bd. II, Marburg 1996, S. 233-250.

42) Marianne Weber, Lebensbild. S. 292-317; 다음 인용들, S. 293, 298 f., 301, 303, 304f.

데, 바로 숲속 중간에, 그리고 한 ‘도시(Stadt)’가 나온다. 그러한 유형의 도시는 정말 완전히 멋진 것이다. 노동자들의 야영지, 특히 수많은 철도 공사장의 선로공들, 자연 상태에 있는 도로들, 대체로 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여름에 두 번씩 석유가 뿌려져 냄새가 나며, 적어도 4-5개 종파의 나무로 지어진 교회들, 이러한 ‘도로들’에서 교통 방해물로 나무집들이 굴러가고, 또 그렇게 계속 움직인다: 그 소유자는 부자가 되었고, 집들을 팔고, 또 새집을 짓고, 오래된 집은 들판으로 가져가고, 거기서 신출내기(Newcomer)가 그 집을 사서, 이사를 들어온다. 여기에서 전보와 전화선의 일상적인 혼란, 공사장의 전기 선로 - 왜냐하면 ‘도시’는 측정할 수도 없는 멀리까지 뻗어 있기 때문이다. [...] 굉장히 매혹적인, 즉 미학적으로 매혹적이지 않는데 - 되어감(Werden)의 광경인데, 내년엔 이미 완전히 오클라호마 도시의 특징이 될 것이며, 이는 즉 모든 다른 서구도시가 수용하게 될 특징이다.

이 모든 것 속에 한 작은 일목요연한 도시사회학을 위한 충분한 자료가 들어 있다. “도시”는 결국 도시형태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서양의 시민도시, 도시계마인데, 도시시민계급, 그리고 근대 자본주의 생성조건을 위해 베버가 발전시킨 경제구조의 문화적 의미를 다룬 것으로, 우리가 본 것처럼, 여기서부터 베버가 적어도 근대 대도시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다. 인간상에 대해, 인간의 유형에 대해서, 그리고 특정 환경조건(지리적, 사회적, 정치적 등)에 의해 발달이 촉진되는 인간의 행동방식에 대한 질문이다. 그렇게 베버가 알프스 북쪽에 있는 중세 내부도시의 특정 형태를 통해서 경제행위의 재방향성에 관심을 두었으며, 그렇게 베버는 다른 학술적 도구로 노동자에게 미치는 근대 공장노동의 영향을 연구하고자 했으며, 또한 유사하게 도시거주민의 예술적 심리적 발전에 미치는 대도시의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근대 대도시의 의미가 여기서 미학적인 분야와 신경활동에 제한되어 있었다. 대도시의 의미는 근대 산업자본주의에 관한 베버의 연구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서술된 작품사적인 맥락을 근간으로 한 첫 번째 설명은 명백하다. 즉, 자본주의에 대한 베버의 시각에서, 그가 언급했듯이, 도시는 (도시계마인데로서: Stadtgemeinde) 도시자유의 간주곡(Intermezzo)에 따라 더 이상 커다란 의미는 지니지 않았다. 또한 경제단위로 뿐만 아니라 경제관계 혹은 새

로운 경제성향의 새로운 형태의 토대로도 커다란 의미가 없었다. 베버가 강조했듯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본주의를 위한 시장지향의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조금의 역할도 더 이상 하지 못했다. 근대 자본주의를 위한 정치적, 제도적 틀을 도시(Stadt)가 아닌 국가(Staat)가 형성했다. 베버가 첫 번째, 즉 경제와 사회(지배자의 유형에 관한 장에서)에 관한 시간적으로 이후의 부분에서 정확하게 표현한 것처럼, 하지만 “재정 지원으로써 도시 계마인테단체들(städtischer Gemeindeverbände)의 관련성은 경쟁적인 봉건적 권력을 위해선 필수적이다.”⁴³⁾ 1896년에 이미 베버는 서양의 역사에 대한 자신의 국가경제적인 구조화된 시각을 분명히 했는데, 중세 “도시”의 부활 이후에 [...] 그리고 나서 시민적 자유의 국민경제로의 이행이 준비되었으며, 또한 봉건시대의 외적, 내적인 권위 하에서의 속박을 폭파시켰다[...].⁴⁴⁾

하지만 이러한 논증으로 당시의 도시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세계종교의 경제윤리”에 대한 “서문”에서 인용한 위의 구절에 대한 도시연구가 완전히 시민계급에 관한 문제에 대해 쓰인 것이 합당할지라도, 도시에 대한 당시의 논쟁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논쟁에 베버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그러나 이를 자신의 원문에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시대사적 관계성

1911년 프리드리히 나우만(Friedrich Naumann)이 자신의 주간지 “디 힐페(Die Hilfe)”에서 확립하기를, 즉 “대략 프랑스인 자신의 논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즉 무엇이 거대한 혁명인지, 그렇게 우리도 오랜 시간동안 우리 국가운명을 통해 우리의 논제를 얻었다. 즉, 무엇이 자본주의 인지.”⁴⁵⁾ 베버에게 자본주의

43) WuG, S. 139.

44) GASW, S. 311. 이 구절은 논문, 즉 ‘고대문화의 멸망의 사회적 이유들’에 해당된다.

45) F. Naumann, Das Suchen nach dem Wesen des Kapitalismus, in: Die Hilfe 178, Nr. 37 v. 14. 9. 1911, S. 578-579.

문화적 발생요인들에 대한 탐색은 자본주의의 문화의미 자체에 대한 탐구와 마주한다. 이 문제를 “머리말에서와 같이 분명하게 표현한 곳은 어디에도 없는데, 이 머리말로 세 명의 국가경제학자 에드가 야페(Edgar Jaffé), 베르너 쾰바르트(Werner Sombart), 그리고 막스 베버는 1904년, 브라운(Braun)의 사회적 입법과 통계 문집, 모든 국가들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탐구를 위한 저널을 인수할 때에 사회과학과 사회정책을 위한 문집(저널의 새 제목이 그러함)의 첫 번째 호를 열었으며, 자신들의 편집정책을 규정했다:

우리의 저널은 오늘날 자본주의 발전의 일반적 문화의미에 대한 역사적, 이론적 통찰을 학술적 문제로 간주하여야 하며, 우리의 저널이 이에 기여한다. 그리고 이 저널은 전적으로 특수한 관점으로부터 나오며, 또 나와야 하고, 문화현상의 경제적 조건의 관점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일반 국가학, 법철학, 사회윤리의 이웃학제들과, 또 사회-심리학적, 대개 사회학의 이름으로 요약되는 연구들과의 밀접한 접촉을 외면할 수는 없다. [...] 우리는 특히 대개 사회인류학적으로 명시되는 문제들에 특별한 주의를 환기시켜야만 할 것인데, 한편으로 말하자면 종족선택(Rassenauslese)의 형성에 대한 경제적 관계성의 반작용에 대한 질문과, 다른 한편으로 계승된 물질적 정신적 특질을 통한 경제적 생존경쟁(Daseinskampf)과 경제적 제도의 영향에 대한 질문들이다.⁴⁶⁾

그 문집의 같은 호에서, 소위 객관성-논문(Objektivitäts-Aufsatz)에서⁴⁷⁾, 베버는 명확히 표현하는데,⁴⁸⁾ 이 저널 본래의 작업분야는 “인간의 공동체생활과 인간 역사의 조직형태의 사회경제적 구조의 일반적인 문화의미에 대한 학문적 탐구이다.”⁴⁹⁾ 사회과학적 도시연구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부터 무엇이 파생될지를 내가 상술할 필요는 없다. 베버가 중요하게 공동으로 이끌었던 저널에서⁵⁰⁾

46) ASSP 19, 1904, S. V.

47) Max Weber, Die „Objektivität“ sozialwissenschaftlicher und sozialpolitischer Erkenntnis (1904), in: WL, S. 146-214.

48) 또한 공동발행인의 이름으로: WL, S. 146.

49) WL, S. 165.

50) 1904년부터 1922년까지를 내가 살펴보았다. 도시문제에 대해 흥미있는 것은 특히 후고

도시의 주거문제에 대해, 토지투기와 도시의 기초연금에 대해서 꽤 상당한 공간을 할애했다.⁵¹⁾

베버의 문집에서 그러나 필경 하지 않은 것을 1909년 발행된 모리스 할브바흐스(Maurice Halbwachs) 저서 “파리의 몰수와 토지가격(Les expropriations et le prix des terrains à Paris, 1860-1900)”에서 보인다. 베버와 “문집(Archivs)”의 다른 저자들도 사용한 경제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합성을 지닌 도시를 할브바흐스는 도시의 구조변동에 대한 원인을 찾는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고유한 사회학적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또한 이러한 분석은 아직까지 지배해 오던 경제적, 역사적, 혹은 정치적 관점을 뒤바꾸어 놓았다.⁵²⁾ 베버의 사회학에서는 그와는 반대로 도시와 관련해서 비교할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독일 언론과 학계에서 도시화, 산업도시 그리고 대도시에 대한 당시의 논쟁에 대해 여기서 아주 짧게 언급할 수 있다. 1900년경 시대의 일반적인 유형은 대도시의 타락에 대한 농경의 낭만적인 편견으로 알려져 있으며, 하지만 역시 반대로 퇴니스와 짐멜의 생각은 대도시가 개인에게 보다 크고 강한 발전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⁵³⁾ 이러한 생각에 대해 베버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미 보여준 것처럼, 도시의 낭만에는 그러나 빠지지 않았으며, 또 이러한 당시의 논쟁에 실제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또한 베버는 퇴니스, 짐멜, 뒤르켐에서 볼 수 있듯이,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와 게젤샤프트(Gesellschaft)의 도식으로 중세와 근대를 대비시키는 것을 철저히 거부한다.

린데만(Hugo Lindemann), 에밀 레더러(Emil Lederer), 파울 뎀베르트(Paul Mombert), 오프마르 슈판(Othmar Spann)와 또한 베르너 쏴바르트(Werner Sombart)의 문헌보고들이다.

51) “주거문제” 등은 “정치경제의 안내서(Handbuch der politischen Ökonomie)”를 위한 1910년 물질분배계획(Stoffverteilungsplan)에도 등장한다; 하지만 그러한 것으로써의 “도시”는 아니다. 거기에 베버는 자기 자신을 위해, 특히 “공경자본주의와 인구계층화(Agrarkapitalismus und Bevölkerungsgruppierung)”에 대한 한 장을 예약해 두었다(MWG II/6, S. 773). 베버는 당시의 도시문제에 있어서는 그리 능력 있다고 느끼지 않았을 테지만, 농경문제에 관해서는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52) 참조, M. Amiot, Contre l'État, les sociologues. Éléments pour une histoire de la sociologie urbaine en France (1900-1980), Paris 1986, Kapitel 1, v.a. S. 14; C. Topalov, Maurice Halbwachs et les villes (1908-1912), in: Annales 52, 1997, S. 1057-1083.

53) 도시비판에 대해서는 다음을 비교하라. A. Lees, Critics of Urban Society in Germany, in: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40, 1979, S. 61-83.

전원생활과 도시화공포의 국가 경제적 변형을 베버는 1897년에 이미 극도로 날카롭게 공격했는데, 즉 보호관세와 산업수출의 포기에 대한 요구와 자작농(Eigenwirtschaft)의 이데올로기를 말이다. 동부 독일의 농업설문에서 베버는 “과도한 독일의 농촌인구와 단지 국내 곡물만의 독일 식량은 이해할 수 없는 대비”라는 결론을 얻었다.⁵⁴⁾ 베버의 눈에는 도시화와 산업화는 강력한 독일을 위한 필수적인 정치적, 경제적 전제조건이며, 그렇지 않으면 독일은 연금자본주의(Rentenkapitalismus)에 의해 약화될 것이라 보았다.⁵⁵⁾

즉, 도시화의 사회적 결과와 도시들의 역할은 이러한 영향들에 대한 극복에 있어서 사회정책을 위한 협회의 커다란 논제에 속했다.⁵⁶⁾ 베버는 직접적으로 “헌법과 도시의 행정조직”, “게마인데의 경제적 사업”, “주거문제(Wohnungsfrage)”, “게마인데의 사회정책” 등에 관한 설문과 토론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회의에서 다양한 논쟁에 가담했는데, 특히 도시에서 사회민주주의의 선거승리에 대한 가능성 있는 결과에 관련해서는 더욱 그랬다. 관료화에 대한 주제 이외에 베버가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다시 도시경제정책이었다. 즉, “게마인데중상주의로, 베버가 카타니아(시칠리아) 빵가게영업의 공유화(Kommunalisierung)를 예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카타니아]는 섬의 유일한 근대 도시이며, 이 유일한 도시인 이곳에는 시민 자본주의가 훌륭한 발전 수준에 있다. 모든 종류의 할인들, 공장을 위한 이 자치공동체에서의 사회적 행정이 주는 장려금조차도 돕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최고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즉 한 게마인데(공동체)가 손에 쥐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관리하는 각각의 노동자계급은 바로 중상주의적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⁵⁷⁾

54) 제8회 개신교-사회 회의의 토의, 1897년 6월 10-11일 라이프치히에서 발표, 1897년 괴팅겐, S. 112.

55) Ebd., S. 109. Die gleiche Argumentationslinie verfiicht Weber, Agrarstatistische und sozialpolitische Betrachtungen zur Fideikommißfrage in Preußen (1904), in: GASS, S. 323-393.

56) 1906-1914년의 논제: 게마인데(Gemeinde)의 사회정책: a) 도시들의 헌법과 행정조직(1907); b) 게마인데의 경제적 사업, 게마인데경영; c) 게마인데과세의 문제. 이전의 년도에는: 공유세 금문제(1877), 주거문제(1886 및 1901). 참고, I. Gorges, Sozialforschung in Deutschland 1872-1914, Frankfurt a. M., 2. Aufl. 1986, S. 425ff., 443.

57) Verein für Sozialpolitik, Schriften Bd. 125, 1908 (= Verhandlungen 1907), S. 294-301; 인용

만일 이 원문에서 최소한 도시의 경제적 분석을 현재까지 진행하는 것을 다루었다면, 이러한 관찰 역시 도시연구에 포함시킬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베버는 자신의 경험적 산업연구를 위해 또한 매우 실용적인 도시개념을 기초로 삼았다. “도시들”이란 개념에서 베버는 “폐쇄적인 거대산업의 노동자계급의 선택과 적응(직업선택과 직업운명)에 관한 조사”의 담당자를 알게 하는데, “더불어 자신의 모든 결과를 포함한 도시 특유의 영업세계를 나타내는 임의의 작은 장소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⁵⁸⁾

도시와 게마인데개혁에 대한 정치적, 사회정치적 논쟁들이 역사적 논증의 도움 하에서 단지 국가경제의 역사학과 사회정책협회 주변에서만 두드러지게 논쟁이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다.⁵⁹⁾ 중세도시의 발생과 특성은 여기서 핵심적 논쟁이었으며, 그러므로 또한 학문적 논쟁들의 핵심적 분쟁논점이었다. 베버는 시장규칙이론(Marktrechtstheorie)과 장원법이론(Hofrechtstheorie)에 대해 역사 학자와 경제학자들 사이의 서사적인 토론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베버는 도시연구에서 한편으론 형식적 법률상으로, 다른 한편으론 사회학적 정치적으로 결정적인 과정들이 항시 구별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도시이론(Städtetheorien)”의 투쟁에 대해 방법론적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⁶⁰⁾ 동시에 베버는 중세도시의 조합적인 혹은 지배적인 특징에 대한 정치적 싸움은 멀리했으며, 도시 혹은 국가의 선위(Anteriorität)와 상위(Priorität)의 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갖지는 않았는데,⁶¹⁾ 그 문제는 중세의 도시의 본질을 근거로 결정되어야 했다.

S. 299 (GASS, S. 411). 참고, die Briefe MWG II/5, S. 177와 407.

58) 정신물리학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베버는 농촌과 도시출신의 차이점을 주시하고 있다(MWG I/11, S. 115).

59) 도시와 게마인데(Gemeinde)개념의 정치적 기능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볼 것: J. J. Sheehan, Liberalism and the City in Nineteenth-Century Germany, in: Past & Present 51, 1971, S. 116-137; J. Reulecke, Bildungsbürgertum und Kommunalpolitik im 19. Jahrhundert, in: J. Kocka (Hg.), Bildungsbürgertum, Teil IV, Stuttgart 1989, S. 122-145; G. Hübing, Kulturprotestantismus und Politik, Tübingen 1994, besonders S. 219-224.

60) MWG I/22-5, S.124. 참조, 쾰른의 시장규칙이론의 “터무니없는 허튼소리”에 대한 비판, 경제사의 문제(Probleme der Wirtschaftsgeschichte), in: Schmollers Jahrbuch 44, H. 3, 1920, S. 73-91, hier S. 80, bzw. an der „unleidliche(n) Melodie von der Hofrechtstheorie“; ders., Der moderne Kapitalismus, Bd. I, 19162, S. 143.

61) 이와는 반대로 K. Schreiner, Die mittelalterliche Stadt in Webers Analyse und die Deutung

이러한 논리로 도시를 위한 보다 확고한 임무, 보다 높은 수입, 또 보다 폭넓은 자치에 대해서 정치적, 학문적으로 찬성과 반대로 싸웠다. 베버의 정치적 사고와 그의 독일 국민국가(Nationalstaat)의 시각에는 그러한 상상은 설 자리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그의 차후의 헌법계획안에도 도시- 혹은 게마인데민주주의(Gemeindedemokratie)를 위한 자리는 없었으며, 지역의 자유를 위해서도 없었고, 그리고 효과적인 행정을 위한 자리도 없었다.

베버가 도시토론에서 당시의 국가경제와 중세연구 내에서 실제로 부단히 수용한 유일한 논제는 도시경제정책에 대한 주제였다.⁶²⁾ 베버가 자신의 도시연구에서 끝까지 추구했던 동기는 도처에서 사용되었던 도시경제정책의 개념을 새롭게 이해하는 것이며, 혹은 경우에 따라 ‘채우고’, 처리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베버가 “객관성”-논문(1904)에서 바로 이 개념에서 국가경제에서의 이념형의 형성을 우연히 설명한 것이 아니다. “도시”의 초입의 장에서 이 개념의 사용에 대해 상세하게 비판한 것 역시 그에게는 도시경제에 대한 기획이 이 전에 서술된 많은 유형표기들(생산자도시, 소비자도시, 무역도시 등)보다 훨씬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베버는 특히 경제적 발전단계로서의 ‘도시경제’와 도시의 경제정책 분석의 일상적인 혼동을 거부하고자 했다.

도시에서 경제단계에 대해 조합, 무역, 수공업 그리고 자본의 발생에 관한 당대의 자본주의 논쟁은 수 년 동안 같은 자리를 맴 돌았다. 여기서 단지 도시경제사만을 가지고 역사학계의 정신에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도는 아무런 결

des okzidentalen Rationalismus, in: Kocka, Weber, S. S. 130: „도시시민 지배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베버는 중세 독일 황제들이 ‘도시자치에 반대해 준비한 법제정들의 변호를 자처했다.“ 참조, 반대로 O. G. Oexle, Kulturwissenschaftliche Reflexionen über soziale Gruppen in der mittelalterlichen Gesellschaft: Tönnies, Simmel, Durkheim und Max Weber, in: Meier, Stadt (wie Anm. 14), S. 115-159, hier S. 144.

62) 시대적 연구개요를 덧붙이면: H. Sieveking, Die mittelalterliche Stadt, VSWG 2, 1904, S. 177-218 sowie P. Sander, Die geschichtliche Erforschung der stadtwirtschaftlichen Handwerksverfassung in Deutschland, in: Die Entwicklung der deutschen Volkswirtschaftslehre im 19. Jahrhundert (Festschrift Gustav Schmoller), Leipzig 1908, S. 1-20. 여기에 오늘날의 시각으로: L. Schorn-Schütte, Stadt und Staat. Zum Zusammenhang von Gegenwartsverständnis und historischer Erkenntnis in der Stadtgeschichtsforschung der Jahrhundertwende, in: Die Alte Stadt 10, 1983, S. 228-266.

과를 얻지 못한다. 날카로운 경제적 도시개념 역시 베버가 “도시”의 첫 번째 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것으로 문집에서 도시의 개념과 도시형성의 본질에 대해 숙고했던 쾰른의 쾰른에게도 역시 인상을 남겼다.⁶³⁾ 쾰른 구별의 몇몇은, 즉 경제적, 행정적, 그리고 도시의 통계적 도시개념 사이의 구별들은 베버의 원문에서 다시 발견된다. 이와는 반대로 경제적 의미에서 도시의 발생기(Genesis)에 대한 문제를 위해 베버는 도시를 건설한 사람들과 도시를 채우는 사람들(본래의 도시형성자와 파생된 도시형성자) 간의 쾰른의 구별을 차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비판은 칼 뷰허(Karl Bücher)를 향했는데, 막스 베버의 사회경제학 요강을 위한 “국민경제의 발전단계(Volkswirtschaftliche Entwicklungsstufen)” (그리고 거기에 “도시경제”)에 관해 그가 1913(!) 제출한 논문은 커다란 실망감을 불러일으켰다. 왜냐하면 이 논문은 “주제에 대한 모든 설명, 즉 사회적 형태와 제도의 관계에서의 경제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⁶⁴⁾ 이는 베버가 1913년 11월 파울 지벡(Paul Siebeck)에게 썼듯이, “뷰허의 미성과 물을 보충하기 위해” 사회학에 대한 자신의 논문을 완성하는 계기가 되었다.⁶⁵⁾

“경제의 사회적 기초범주“에서, 경제와 사회의 첫 번째, 즉 이후의 부분에서 새롭게 경제의 종류와 경제정책 사이를 보다 세밀하게 구별한다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 베버는 경제적 “발전단계(Entwicklungsstufen)”의 문제를 다시 끌어냈다.

그 쇤베르크(Schönberg)에 의해 즉흥적으로 연주된 슈몰러(Schmoller)식과 그 이후

63) Sombart, Begriff der Stadt. - E. Gothein, Wirtschaftsgeschichte des Schwarzwaldes und der angrenzenden Landschaften, Straßburg 1892, S. 7, 여기서 쾰른은 도시에 대해 하나의 통일된 개념을 세우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64) Johannes Winkelmann, Max Webers hinterlassenes Hauptwerk: Die Wirtschaft und die gesellschaftlichen Ordnungen und Mächte. Entstehung und gedanklicher Aufbau. Tübingen 1986, S. 16. 특히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1913년 11월 3일과 12월 30일 파울 지벡(Paul Siebeck)에게 보낸 베버의 편지들, 그리고 11월 4일 요한 플렌게(Johann Plenge)에게 보낸 편지: „뷰허의 원고(Mscr.)는 정말 초라하며, 또 “단계이론”이 너무 적다[...].“ (MWG II/8).

65) 1913년 11월 3일 파울 지벡에게 보낸 편지. 발전단계를 이념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베버가 지적해 주면서, 베버는 그때까지 비판으로부터 뷰허를 항상 변호해 왔다. 아마도 뷰허 자신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에 변화된 단계들, 즉 가정경제, 마을경제 - 여기에 다음 ‘단계’로서: 장원(莊園)과 봉건영주의 재정경제 -, 도시경제, 국가(영토)경제, 국민경제는 그의 학술용어에서 경제규제적인 단체의 형태를 통해서 정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규제의 유형은 다만 다양한 규모의 단체에서는 역시 다양할 것이라는 점은 언급되지 않았다.⁶⁶⁾

독일의 국가(영토)경제정책은 넓은 규모로 단지 도시경제의 규정들을 인수한다는 것이며, 또한 이 정책의 새로운 제도는 비교적 합리적인 국가단체의 중상주의 정책과 특별히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의 내적 구조”(즉, 성과물특성과 성과물 분배의 종류, 노동활용, 조달수단과 소득기회의 점유의 종류)는 경제정책의 (가능한) 이행자인 “단체의 규모와 유사하는 점을 특히 말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덧붙여, 그 내적 구조는 단체의 규모와 항시 같은 의미로 교체한다는 점을 말하지 않았다. 서양과 아시아의 비교 그리고 근대와 고대 서양의 비교는 이러한 가정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준다.”⁶⁷⁾ 바로 그것이 베버가 자신의 당시에 아직 출간되지 않았지만, 이미 예지했던 도시연구에서 보여주었다.⁶⁸⁾

단체행위(Verbandshandeln)로서 도시경제정책

막스 베버는 도시에 대한 자신의 연구에서 무엇보다 도시경제정책이 사회적 형태와 제도 그리고 도시의 다른 본질적인 구성요소와 상호작용 관계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도시경제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베버는 언제나 단체(Verband)의 문제로 돌아간다. 그러나 “도시”의 집필은 또한 그 몇 년으로 돌아

66) WuG, S. 64.

67) WuG, S. 64f.

68) 이어지는 학술용어에서(WuG, S. 69) 베버는 “서양의 중세 자치단체(Kommunen)에서의 여러 경제규제들을 해석했으며, 마찬가지로 중국과 인도의 조합과 카스트에서도 [...], 수공업에서의 노동방향의 종류를 규제하는 것”, 수공업자의 시장자유와 자치적 소득경제 방향의 제한으로서: “그것은 주어진 수공업영리를 위한 ‘자양분’을 유지하는 것에 방향을 두었으며, 즉 소득경제의 형태에도 불구하고 가계경제적 지향은 여전히 내적으로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정도까지이다.”

가는데, 그 시기에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Protestantischen Ethik, 1910)에 대한 반론을 완성한 후, 근대의 시장지향적 자본주의의 발생조건과 발생요소에 관한 논제를 보다 광범위한 토대위에 세웠다. 이전 시기에 베르너 쾰바르트는 베버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왜냐하면 그가 지적으로 가장 근접한 논쟁의 적수였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경제를 위한 종교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서 뿐만 아니라, 또한 전체적으로 자본주의의 발생과 특징화에 대한 질문에도 해당된다. 개별적으로 거기선 자본주의 기업의 형태⁶⁹⁾에 관한 것이며, 시민계급(쾰바르트의 부르주아(Der Bourgeois)는 1913년에 발행되었다)에 관한 것이며, 도시경제정책에 관한 것이며, 또한 도시의 경제적 개념⁷⁰⁾에 관한 것이다. 베버가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쾰바르트와 근대 자본주의의 발생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진행했던 논쟁은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이탈리아, 플랑드르, 영국의 의미도 건드렸으며, 따라서 베니스와 영국의 도시들 또한 연구조사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도시에 대한 정치적 구조의 비교분석은 자본주의를 위한 도시의 경제적 기능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는 도시의 정치적 구조를 통해서 함께 결정되는 데 한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조직형태의 형성과 구성변화 그리고 경제행위의 형태들에 관한 것이다.⁷¹⁾ 경제와 사회의 시작부분에서 베버는 이러한 발전을 다시 한 번 요약하고 있다:

근대, 특히 서양의 자본주의는 (비교적) 합리적으로 관리되었던 독특한 서양의 도시의 단체들(이들의 특성에 대해선 나중에 별도로 언급할 것이다)에서 준비된 것이다. 근대 서양의 자본주의는 16세기부터 18세기에 동안에 일차적으로 도시적 네덜란드와 영국의 시민의 권력과 상업이익의 지배를 통한 탁월한 정치적 단체들 내에서 발전되었으며, 반면에 재정적 또 공리적으로 제한된 2차적 모방은 스튜어트(Stuart)식 독점산업과 미참가지로 순전히 세습적인 혹은 봉건-도시의 영향을 받은 대륙 국가들

69) 참고, W. Sombart, Der kapitalistische Unternehmer, in: ASSP 29, 1909, S. 689-758.

70) Sombart, Der moderne Kapitalismus (1902); ders., Begriff der Stadt.

71) 도시의 형성으로서 중세시대의 도시가 경제인간을 만들었다는 자신의 논제로 베버는,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아담 스미스의 숙고를 다시 시작한다; 참고, A. Bürgin, Zur Soziogenese der politischen Ökonomie. Wirtschaftsgeschichtliche und dogmenhistorische Betrachtungen, Marburg 1996², S.380.

에서 나중에 도입한 자치 자본주의의 발전을 내포한 실질적 연속성을 갖지는 못한다.⁷²⁾

이 분명히 미완성된, 하지만 일관되게 계획했던 원문에서 베버가 도시의 단체와 시민계급에 관해 다룬 것보다 도시에 대해 다룬 것은 적다. 이로써 원래대로 변함없다는 가정에 근접한다. 즉, 단체행위(Verbandshandeln)로서의 도시경제에 대한 의문은 시민계급의 발생조건들의 연구와 관련되며, 또는 서양의 외부에선 그러한 발생을 방해하는 요소들과 관련되어 있다. 원문의 가장 큰 어려운 점들 중의 하나는 그의 풍부함에 있다는 것인데, 달리 말해 베버의 놀라운 독자성에 있는데, 그는 관심을 갖는 모든 문제를 가능한 한 더듬어 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하튼 간에 원문에 만족할 수 있으며, 또한 도시연구의 핵심주제에 대해 정당하게도 다양한 가정들이 존재하며, 마찬가지로 지배사회학(Herrschaftssoziologie)에 혹은 세계종교의 경제윤리에 포함시키는 것에 찬성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러나 거기서 베버는 “도시”의 핵심적 논증을 사용했으며, 그리고 보다 훨씬 상세했을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와 고대 기독교의 경제윤리에 대한 연구에서도 그는 유사하게 다루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베버는 1911년부터 1914년 사이의 자신의 원문을 수정하지 않은 채로 그런 연구에 간단히 삽입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경제와 사회에서 도시의 단체들에 대해 다룬 위에서 인용한 참조는 베버가 “도시”에 대한 자신의 전쟁 이전의 원고를 그곳에 단순히 끼어 넣었을 것이라고 그렇게는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⁷³⁾

우선 베버가 원문을 출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아마도 근거를 두어야 하며,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베버가 분명히 자신의 뒤늦은 뉘른의 강의에서도 다시 꺼내 시작했던 그 원고로 도대체 무슨 계획을 했는지 수록해 두었을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1919년 9월 11일 자신의 발행인인 파울 지베크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베버는 “서양의 특수발전”에 대한 일반적

72) WuG, S. 139.

73) 빙켈만(Winckelmann)이 계획했던 통치사회학으로의 편입에 대해서 참조, S. Breuer, Nichtlegitime Herrschaft, in Bruhns & Nippel, Max Webers Stadt, S. 63-76.

토대에 관한 것으로 아직 써야하며(머리에선 끝냈다),” 또한 “세계종교의 경제윤리”에 삽입시킬 논문 하나를 알렸었다.⁷⁴⁾ 6주 후에 인쇄된, 그리고 베버가 직접 교정한 종교사회학 모음 논집(Gesammelten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예고편에서 보다 정확히 말한다. 즉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세계종교의 경제윤리에 대한 논문들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조로아스터 종교의 윤리에 대한 짧은 서술을 통해서, 하지만 주로 고대와 중세에서 유럽 시민계급의 발전에 전념한 개요의 서양의 사회적 독자성의 발생에 대한 서술을 통해서” 확장되어야 했다.⁷⁵⁾ “머리에선 끝냈다(Im Kopf fertig)”라는 뜻은 당연히 대부분을 이미 써 놓았다는 것을 말하며, 요컨대 도시에 관해 그리고 덧붙이자면 도시경제정책에 관해서 세계전쟁 바로 직전에 쓴 연구에서 말이다.

74) MWG I/20, S. 37 (editorischer Bericht). MWG II/10 (Briefe 1918-1920), S. 771.

75) MWG I/19, S. 28 (편집보고).